



# 2008 자재 동향 결산

김현회 / 원켄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

설비 자재 가격이 올해처럼 급격하게 요동친 해도 없을 듯싶다. 지난해 말부터 이상 징후를 보인 원자재 가격이 금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금년 8, 9월까지 고공 행진을 벌였다. 설비자재 가격 역시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거의 전 품목이 우상향하며 치솟았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은 많이 내렸지만 아직 설비 자재 가격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우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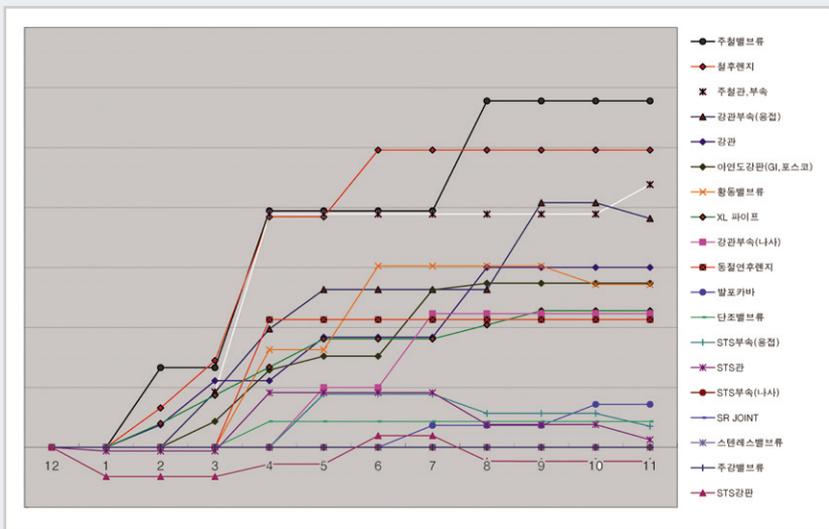
더욱 힘겹게 한다.

위 그래프에서 보면 주철 관련 제품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거의 120% 가까이 오른 채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어서 철 후렌지, 강관 용접 부속 등 철재 관련 자재 역시 상승폭이 컸다고 할 수 있겠다. XL 파이프, 동절연후렌지 등은 50%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스테인레스 강관, 밸브류 등

은 작년 말과 동일하거나 보기 드물게 내린 경우도 있다.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은 국제 원자재를 원료로 사용하고 수요도 많은 자재들이 오름세를 주도했다. 지난 호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자재 제조사들은 환율 상승 등의 이유로 가격 인하를 최대한 늦출 것이며 우선 감산으로 공급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공장도가, 협가 등은 고정시킨 채 대리점 등



2008년 설비자재 가격 동향, 자료제공:원켄네트웍스, 2008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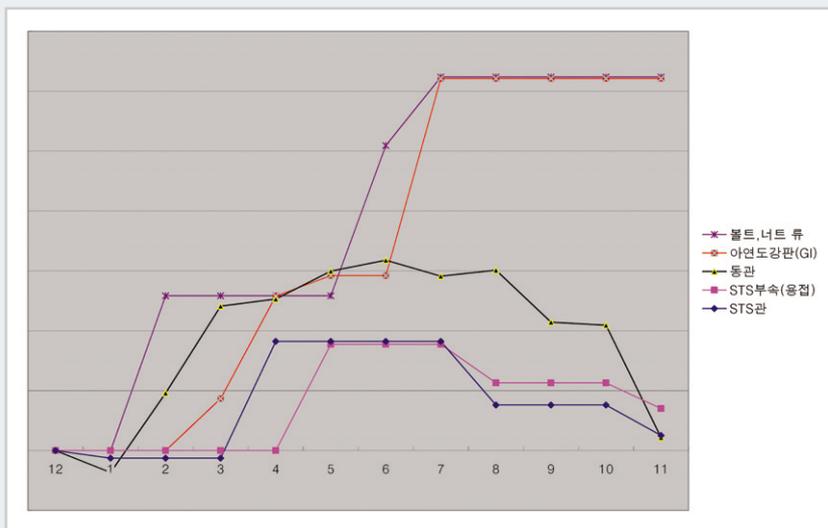
“설비 자재 가격이 올해처럼 급격하게 요동친 해도 없을 듯싶다. 지난해 말부터 이상 징후를 보인 원자재 가격이 금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금년 8, 9월까지 고공 행진을 벌였다.

설비자재 가격 역시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거의 전 품목이 우상향하며 치솟았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은 많이 내렸지만 아직 설비 자재 가격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우리를 더욱 힘겹게 한다.”

“설비건설업계의 금년 한 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여리박빙(如履薄氷)’ 이라고 하겠다. 자재 값 상승과 이어진 글로벌 자금경색 및 실물경제 위축 등으로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하루하루이지 않았나 생각된다. 아직도 살얼음판 위에 서 있긴 마찬가지다. 하지만 태초 이래 지금까지 추운 겨울이 지난 후에 따뜻한 봄날이 오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아무리 추워도 겨울은 가고 봄은 온다. 그 때까지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버텨야 하겠다.”

중간 유통 단계의 가격 조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가격 인하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가격인하를 발표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그래프에서도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2008년 설비자재 가격 동향, 자료제공:원켄네트웍스, 2008년 11월)

현재 스테인레스 제품의 경우 공식적으로 가격이 내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래프에서처럼 유통 과정에서 이미 8월 이후 실질적인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에는 가격 인상에 따른 자재 품귀 현상도 많았다. 가격 인상을 선도했던 주철 제품이 그랬고 그래프에서도 나타나듯이 아연도강판 역시 7월 이후 구하기가 쉽

지 않았으며 가격도 급격히 상승했다.

설비건설업계의 금년 한 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여리박빙(如履薄氷)’ 이라고 하겠다. 자재 값 상승과 이어진 글로벌 자금경색 및 실물경제 위축 등으로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하루하루이지 않았나 생각된다. 아직도 살얼음판 위에 서 있긴 마찬가지다. 하지만 태초 이래 지금까지 추운 겨울이 지난 후에 따뜻한 봄날이 오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아무리 추워도 겨울은 가고 봄은 온다. 그 때까지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버텨야 하겠다. ☺



**김현회(金炫會) 총괄본부장 프로필**

- 現 원켄네트웍스(구 설비넷) 사업총괄본부장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91년)
- 삼성그룹 공채 입사(91년, 삼성화재 발령)
- 홍보실 근무(사보, 사장단 연설문 작성, 사내방송PD, 언론·인터넷 담당 등)
- 삼성그룹디자인연구원 멀티미디어학과 및 UCLA Extension(뉴미디어, 스토리텔링 등) 과정 수료
- 시장개발 및 영업기획 업무 담당(PDA영업, 리플렛 기획 등)
- 인터넷사업팀 근무(삼성화재 전국애니카서비스망 구축, 전사 인터넷사업 기획 운영 등)